

여당 의원들에 발목잡힌 韓-美 FTA

여야의원 23명 위헌소송... 與 13명 동참, 당·청갈등 고조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3명을 포함한 여야 의원 23명이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여당의 협조를 당부해온 노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당청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국정의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 방법”이라며 비판하고 나서 당내 갈등도 증폭될 조짐이다.

“한미 FTA를 연구하는 의원모임” 대표인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헌법상 조약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협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대변해야 할 국회가 더 이상 한미 FTA협상에서 배제되는 안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우리당 김태홍,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홍미영 의원 등 13명과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 및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참여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법률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현재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정



7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시민단체회원들과 헌법재판소에 한미 FTA협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의 협상 진행 추이를 지켜본 뒤 집행정치 가져본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참여한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것인데, 국민들의 여러 의견과 염려를 반영하려면 국회 차원에서 활동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용래 공보담당부대표는 “이번 소송은 조약, 비준의 협상권과 동의 권한을 나눠놓는 헌정 질서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 국제조약의 유효성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은=국가기관의 권한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이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낸 것은 1998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에 대해 제기한 것이 유일하다.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정부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정보를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

“작통권 이양시기는 2009년”

벨 사령관,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서

버웰 벨(사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7일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시기를 2009년으로 언급, 미측이 사실상 전시 작통권을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굳힌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벨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회관에서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에 참석해 “지속적인 역지력 및 전투준비태세가 보장된 상태로 지금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친 조직적인 활동, 훈련 및 연습을 통해 전시 작통권 이양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 결과 한국의 전시 작통권 행사는 2009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양국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2009년이 적합하며 이는 대단히 신중한 평가를 거친 후 나온 결론”이라며 “2006년에 (준비물) 시작하면 2009년에는 (이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윤광용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2009년에 전시 작통권을 한국군에 넘기겠다고 밝힌 데 이어 벨 사령관이 2009년을 재차 언급함으로써 이달 14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벨 사령관은 “미국은 한국의 전시 작통권에 대한 갈망을 지원한다”며 미측의 작통권 이양의지도 확인했다. 또 “지휘체계가 어떻게 변하든 한미 동맹은 공고하고 (역지)능력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고 전시 작통권 이후에도 한미동맹 약화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작통권 환수 반대 본질은 정권획득 음모”

이병완 靑 비서실장 특강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정 체결 추진에 반대하는 진보와 보수 양측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두 현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 실장은 이날 시내 조선호텔에서 인간개발경영자연연구 주최로 열린 특별강연회에서 “극단적인 선포주의” “정치적 음모론” 등의 수사를 동원해 전시 작통권 환수 등에 대한 반대론자들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 실장은 먼저 “참여정부를 보는

시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다. 극우·수구 세력은 참여정부를 반미·좌파·친북정권이라고 극렬히 매도하고, 극좌·급진세력은 친미·골중·사대주의 정권이라고 역시 매도한다”며 “진미든 반미든 하나를 선택하란 뜻이 참여정부를 몰아부친다”며 진보와 보수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작통권 환수와 한미FTA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우리사회의 분열양상을 보면서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도, 민주화된 자유국가에서 당연한 논쟁이거니와 위안을 삼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중동포 ‘백두산’ 중국 도메인

“한국인에 팔겠다”

중국이 최근 2018년 동계올림픽을 백두산(중국어 長白山)에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백두산 공정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재중동포가 백두산 중국 도메인을 한국인에게 팔겠다고 말했다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엔지에 거주하는 손(32)모씨는 7일 “백두산 중국 도메인(http://白頭山.中國, 또는 白頭山.cn)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한국인에게 양도하겠다”고 말했다. 손 씨는 “기증도 검토해 보고 있지만 얼마간의 돈을 받고 판매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성현 민노당 대표가 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을 찾아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민노당 홍보물을 상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광주 찾은 민노당 “한-미 FTA 국민투표 붙여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와 노회찬 의원 등은 7일 광주 동구 금수장 호텔에서 ‘한미FTA 중단, 민생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한미 FTA는 단순한 경제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 영

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여부를 대통령의 신념이 아닌 국민투표를 통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와 함께 한미 FTA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500만인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정일 건강 이상說

베이징 외교가, 간·심장 안좋고 당뇨 심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중국 베이징(北京) 외교가의 한 인사는 6일 사석에서 “김 위원장은 간과 심장이 안 좋고 당뇨가 심할 뿐 아니라 전립선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이어 “김 위원장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인사는 김 위원장의 방중설과 관련,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가

최근 북한 신의주에서 포착됐던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이 신의주 인근 구성의 공작기계공장과 닭공장을 현지 지도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특별열차가 그곳에 머물 동안 머무는 바람에 이것이 방중설로 비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도 이날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설과 관련, “김 위원장은 간과 심장이 안 좋고 당뇨가 심해 정상적 보행이 어렵다고 한다”고 비슷한 주장을 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야당 내 최고의 정보통으로 꼽히는 정 최고위원은 이날 경북 경주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한나라당 울산시장 연찬회에 강연자로 참석해 북한 동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부시, CIA 비밀감옥 시인

9·11테러 유가족 참석 연설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중앙정보국(CIA)이 테러용자들을 구금 및 신문하기 위해 외국에 ‘비밀 감옥’을 설치·운영한 사실을 시인했다.

작년 말 언론 보도 이후 미국내외는 물론 미국과 유럽국가간에 논란이 됐던 CIA ‘비밀감옥’의 존재에 대해 부시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9·11 테러 유가족들이 배석한 가운데 행한 연설에서 9·11 테러 기획자로 알려진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를 비롯해 14명의 일급 테러용자들이 CIA의 비밀 감옥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군이 운영하는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日 41년만의 왕자 출산

경제효과는 1조 3천억

일본 왕실의 부계 왕위 적통을 이을 남아 출산의 경제적 효과는 1천500억엔(약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 다이치(第一)생명보험연구소는 6일 일본 열도를 흥분시킨 국왕의 둘째 며느리 기코(39) 여사의 남아 출산에 대해 2001년 왕세자빈 마사코 여사의 여아 출산 때 혼인건수 증가 등 데이터를 토대로 이 같은 경제효과를 산출했다.

연구소는 2001년 출산 때의 직접적인 효과로 결혼비용의 지출이 약 590억엔 늘고 출생 수 증가로 인한 관련비용 지출이 약 70억엔 증가했으며, 그밖에 출판, 방송 업계의 파급효과가 약 1천억엔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도쿄=연합뉴스

50% Sale **이택리 가구**

1. 2년만의 大 세일
2. 천만 기념일 새 신상 오픈기념
3. 비례의 변칙 Qeering 한국총판 판매기념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 할인대상

총수령가: 100만원 이상 10% 할인, 200만원 이상 15% 할인, 300만원 이상 20% 할인

주요상품: 1. 100만원 이상 10% 할인, 200만원 이상 15% 할인, 300만원 이상 20% 할인

대구 장동로터리 1111번지 **이택리** TEL 226-7565~7

노인복지교육사 / 케어복지사

특별강좌 개설 **노인수발보육법 및 각종 선진복지제도 시행** **합격보장 회원제**

—고령화 사회의 최고 유망직업—

한도 사회복지 실무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전문, 각종 국·공립 사회복지사시험 등 3급고용에 대한 세심한 사후관리로 취업까지의 성공 사례를 경험하십시오.

- 수강대상: 일반인, 예비 사회복지사
- 수강기간: 12주(총 24회 수업)
- 수강비용: 100만원 (수료 120만원)
- 수강시간: 월요일 19:00~21:00, 수요일 19:00~21:00, 금요일 19:00~21:00

입학지원금, 교재, 교습비, 실습비, 실수연수, 자격증 취득, 취업지도 및 취업추천

진문교육법인 아카데미 평생교육원
www.aj.ac.kr
062-522-8600